

# 오늘, 우리, 여기 '목빛으로 흐르다, 머물다'

'2024 허백련미술상' 이철량 개인전...내달 9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 현대 도시 풍경 속 스며든 전통의 먹빛, 수묵 언어로 풀어내 초기작부터 '회복·연대' 담은 근작까지 40여 년 궤적 한자리

'시간을 담은 먹빛, 도시와 자연을 잇다.' 광주시립미술관이 2024 허백련미술상 본상 수상자인 이철량 작가 개인전 '시정유묵(市精幽墨), 지금-여기'를 선보인다. 전시는 오는 11월9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5·6전시실에서 열린다. 1980년대 수묵화 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해 온 작가의 예술세계를 집약적으로 조명할 자리다.

전시 제목 가운데 '시정(市精)'은 자연에서 머물던 전통 수묵의 시선을 도시 감성으로 확장한 작가의 미학을 의미한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초기 실험작부터 도시·자연·인간의 관계를 탐구한 최근작까지 총 53점의 작품으로 구성됐다. 수묵의 조형성과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작품들은 그가 반세기 가까이 이어온 '지금-여기'의 미학적 여정을 보여준다.

이철량은 홍익대 동양학과를 졸업하고 1980년대 초반 수묵화 운동의 중심에서 새로운 한국화를 모색한 작가다. 1980년 '동아미술상'을 계기로 주목받은 그는 '문제작가전' (1982, 서울미술관), '한국현대수묵화전' (1981, 국립현대미술관) 등 주요 전시에 참여하며 수묵을 동시대 회화로 확장시키는 데 앞장섰다. 전북대교

수로 재직하던 시기에는 '신시(新視)' 연작(1988-2005)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인간 내면의 회복, 연대의 가치를 수묵의 언어로 풀어내며 독자적인 미학을 구축했다.

전시는 두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부 '전통과 현대 사이-새로운 수묵'에서는 1970-80년대 실험적인 초창기 작품이 소개된다. 파란편을 입힌 화선지를 굵어내거나 플라타너스를 정밀하게 묘사한 작품, 먹의 번짐과 여백의 균형을 탐구한 '연덕' 등은 당시 보수적인 화단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그가 주도한 1980년대 수묵화 운동의 전시 자료(1980-1993)도 함께 공개돼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세대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준다.

2부 '동시대 회화로서의 수묵-또 다른 자연'에서는 도시를 생태적 시선으로 바라본 최근작들이 중심을 이룬다.

'도시' (2007-2018) 연작은 급격히 변하는 풍경 속에서 사라져가는 골목과 건물의 기억을 담는다. '또 다른 자연' (2019-) 연작은 도시를 또 하나의 생태계로 인식하며, 인공적 구조 속에서도 인간의 감정과 존재가 자연처럼 스며드는 장면을



1부 '신시(新視)' 연작(1988-2005)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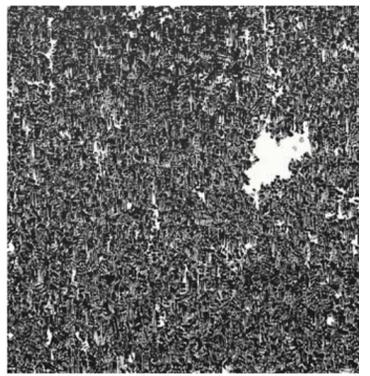
보여준다. 도시의 구조와 그 속에 깃든 인간의 흔적을 통해 작가는 자연과 인간, 시간의 관계를 사유하며, 수묵을 오늘의 언어로 번역해왔다. 전시작들에서는 미묘한 먹의 농담과 절제된 여백 속에서 인간과 환경의 조화,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전시장에는 작가의 글과 1980년대 전시 자료, 평론가 조송식(조선대 명예교수)·이민수(홍익대 초빙교수)와의 대담 영상이 함께 소개된다. 작품 세계의 흐름뿐 아니라 한국화의 정체성과 동시대성을 함께 고민해온 작가의 사유를 조명하는 자료들이다.

이철량 개인전은 "이철량은 전통을



'연덕 Hill'(1980)



'도시 1000'(2011)

기반으로 하되, 현실의 문제를 깊이 응시하며 수묵의 가능성을 확장해온 작가"라며 "허백련미술상의 정신을 오늘의 시점에서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 '언젠가 봄날에'...다시 피어나는 오월의 기억

놀이패 신명 공연, 15-16일 5·18기념문화센터

놀이패 신명(대표 정찬일)의 대표작 오월마당극 '언젠가 봄날에'가 새로운 구성으로 관객을 찾는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하는 '2025 지역 예술도약지원사업'에 선정돼 내용과 형식 전반에 걸쳐 변화를 시도했다.

'언젠가 봄날에'는 201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을 기념해 처음 제작된 작품으로, 500여회 이상 지역과 전국을 순회하며 공연된 신명의 대표 레퍼토리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언젠가 봄날에'는 현 시대의 정서를 반영한 내용을 추가하고 의상과 소품을 보강했으며, 실연자 확대와 라이브 연주를 더해 완성도를 높였다.

이야기는 곳을 마친 무당 박조금이 옛 도청 앞 은행나무를 찾으며 시작된다. 저승에 가지 못한 시민군 호석, 여고생 정옥, 백구두가 세상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이승으로 돌아오고, 마침내 도청 앞에서 가족과 재회하며 화해의 순간



놀이패 신명 '언젠가 봄날에' 공연 모습

을 맞는다. 공연은 15일과 16일 양일간 상무지구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오후 3시와 7시30분 하루 두 차례 열린다. 관람료는 2만원이며, 문의는 062-527-7236(놀이패 신명)으로 하면 된다. /최명진 기자

## '바람이 물을 스칠 때'...제21회 화엄문화제 성료

추모제·요가대회·음악제 등 진행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지리산 대화엄사(주지 우석스님)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바람이 물을 스칠 때'를 주제로 열린 '2025 제21회 화엄문화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화엄문화제는 3일간 추모제, 요가대회, 음악제, 라인댄스 경연, 걷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첫날인 10일 오전에는 화엄사 각황전을 수호한 고 차일혁(1920-1958) 경무관 67주기 추모제가 봉행됐으며, 오후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어산어장 인목스님과 어산종장 동환스님이 폐회제를 집전했다.

둘째날에는 '오래된 미래, 더 새롭게'를 주제로 전남 요가 동호인과 구례·마산면 요가회원, 스님 등 150여 명이 참여한 요가 행사가 열렸다. 저녁에는 화엄문화제의 하이라이트인 음악제가 보제루, 각황전, 대웅전 앞마당에서 펼쳐졌다. 마지막날인 12일 오전에는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한



'21회 화엄문화제' 프로그램 요가대회 전경

'제2회 지리산대화엄사 구례군 라인댄스 동호인대회'가 열렸다. 이어 '제5회 어머니의 걷기대회'가 보제루 앞에서 출발해 연기암까지 왕복 8km 구간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연기조사의 효심을 되새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우석스님은 "올해 화엄문화제를 통해 화엄사가 '문화 창조하는 사찰로서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자연도,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 사용기한 없음 / 365일 관리 / 광주에서 20분 / 무료 안치

광주수목장 문의 062.449.4446